

3 칼빈의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의 담지자로서 그리스도-

최윤배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1. 서론

칼빈의 성령론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칼빈의 성령론은 크게 두 가지 영역, 즉 성령의 본질과 성령의 사역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미 칼빈의 성령론 연구에 대한 입문에 해당되는 글과¹⁾ 특히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triplex munus Christi)에 대한 글을 최근에 쓴 바가 있다.²⁾ 필자는 본 고에서 성령의 사역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에 살펴보고자 한다. 성령론에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교회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여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네덜란드의 대표적 개혁파인 현대 교의

1. 최윤배, “최근의 칼빈의 성령론 : 연구방법론과 성령론을 중심으로,” 한국칼빈학회 편, 『최근의 칼빈 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58-173.
2. 최윤배, “부처와 칼빈에게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서울장신대학교 편, 『서울장신논단』 제7집(1999), 128-146.

학자 헨드리쿠스 베르코프(Hendrikus Berkhof, 1914-1995)이다.³⁾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현대 성경신학이나 교의학의 관심 주제만은 아니다. 칼빈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연구를 체계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다양한 저서들로부터 볼 때, 현금의 신학자들 못지않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칼빈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상호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았을까? 에먼(E. Emmen)은 칼빈이 그리스도와 성령 사이의 관계를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⁴⁾ 여기에 반대하여, 판 데어 린드(S. van der Linde)가 칼빈의 경우 성령은 그리스도에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타당성이 있다.⁵⁾ 그리스도는 그의 어린 시절에 비로소 성령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잉태 때 이미 성령을 받으셨다.⁶⁾ 이 같은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또는 성령론적으로 정향된 지상적인 삶의 시작은 그의 전 생애, 그의 고난과 부활에서도 계속되었다.⁷⁾ 크루쉬도 여기에 동의했다.⁸⁾ 하나님의 아들로서

3. 최윤배, “헨드리쿠스 베르코프의 성령론과 기독교론의 관계성 연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편, 『신학논단』 제31집(2003), 99-138.

4. E. Emmen, *De Christologie van Calvijn*, Amsterdam 1935, 7: “Het zal wellicht opvallen, dat over Christus en den Heiligen Geest niet afzonderlijk wordt gehandeld. Voor Calvijn sprak dit verband vanzelf, zoodat hij er geen speciale omschrijving van gaf, evenmin een verdeling van shreef.”

5. S. van der Linde, *De leer van den Heiligen Geest bij Calvijn*, Wageningen 1943, 85: “De beteekenis van den Heiligen Geest voor de Christologie is een zóó centrale, dat ze wel d edragende grond mag heeten,” cf. 각주 3: “In de dissertatie van Dr. E. Emmen, *De Christologie van Calvijn*, Amsterdam 1935, wordt terloops vermeld de betrekking van Christus en de Heiligen Geest, maar de beteekenis van den Heiligen Geest voor het Chritusbeeld komt O.I. zeer tekort.”

6. CO 45, 15(=Comm. Ev. Lk. 1:15).

7. S. van der Linde, op. cit., 85.

8. W. Krusche, *Das Wirek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Göttingen 1957, 12 7: “E. Emmen hat dem auch in seiner Christologie Calvins von vornherein auf den Versuch einer Erörterung des Verhältnisses von Christus und Geist verzichtet mit der Bergündung, Calvin habe keine spezielle Bestimmung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심으로써 성령의 담지자(擔持者)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그는 성령을 보내는 자가 되셨다.⁹⁾

우리는 본 고에서 성령을 보내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의는 논문 분량상의 이유로 제외하기로 하고, 성령의 담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2.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칼빈의 경우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동기와 목적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동기는 우리의 죄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이다. 여기에 대한 칼빈의 사상은 이미 『기독교강요』 초판(1536)에 나타난다. “우리는 아버지의 신성과 함께 연합되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신적인 호의와 자비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으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타락한 마귀의 독재로부터, 우리를 사로잡았던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충동으로 몰고 갔던 몸과 영혼의 죽음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받아야만 했던 영원한 처벌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셨다. 이 모든 힘에 억눌려 있지 않고, 우리는 해방되어 구속받았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인간이시라는 사실이 우리

dieser Verbindung gegeben, da sie für ihn von selbst gesprochen habe. Aber wir werden uns durch diesen generellen Verzicht nicht davon abhalten lassen dürfen zu versuchen, ob sich nicht vielleicht doch bei Calvin einiges im Hinblick auf unsere spezielle Frage ausmachen läßt, was dann für die genauere Bestimmung des Verhältnisses von Pneumatologie und Christologie überhaupt von Bedeutung sein könnte.” cf. 각주 4: “E. Emmen, *De Christologie van Calvijn*, Amsterdam 1935, S. 7. VAN DER LINDE hat a.a.O. S. 84ff. das Vererthhältnis von Hl. Geist und Fleischwerdung des Wortes dargestellt.”

9. W. Krusche, op. cit., 129.

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¹⁰⁾

그리스도의 참인간성과 무흠(無欠)의 문제를 중심으로, 칼빈은 마니교도, 마르시온주의, 재세례파, 로마 가톨릭 교회와 논쟁했다. 칼빈은 마니교도들에 반대하여 그리스도의 참인간성을 강력하게 옹호한다.¹¹⁾ 그리스도의 참인간성 문제와 관련해서 칼빈의 마니교도들과 마르시온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의 「기독교강요」 초판 이후의 다른 개정판들 속에서도 계속 나타난다. 마르시온주의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가현(假現)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주장했다. 마니교도들은 그리스도가 마리아로부터 땅에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늘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마니교도들은 헛된 꿈을 꾸는 몽상가에 불과하다고 칼빈은 그들을 비판했다.¹²⁾

“성령으로 잉태하사”(conceptus de spiritu sancto)라는 사도신경의 한 구절을 중심으로 칼빈은 예수의 완전한 인간적 육체성을 부정하는 고대시대의 가현설적인 개념과 16세기 재세례파, 특히 멘노 시몬스(Menno Simons)에게서 발견되는 새로운 형태의 가현설을 비판했다.¹³⁾ 멘노 시몬스는 네덜란드 출신으로서 재세례파에 속했으며, 종교개혁 당시의 인물이었다.¹⁴⁾ 그에 대한 칼빈의 비판은 「기독교강요」(1559) 최종판에 특별히 많이 나타난다.

칼빈은 멘노 시몬스가 잘못 이해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개념을 비판한다.¹⁵⁾ “여기서 마태는 동정녀 마리아를 그리스도를 탄생케 한 관

(官)으로 묘사하지 않고, 그리스도 탄생의 놀랄 만한 방법과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방법 사이를 구별해 준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나며 솔로몬이 다윗에게서 나며 요셉이 야곱에게서 낳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마태는 그리스도는 그의 어머니에게서 나셨다고 기록해 주기 때문이다.”¹⁶⁾ 칼빈은 「재세례파에 대한 반대」라는 저서에서 그리스도의 참인간성과 그리스도의 무흠을 주장했다.¹⁷⁾

고대 교회에서 기독교 이단으로 정죄된 아폴리나리우스(Apollinarius)는 영원한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영혼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단지 반쪽 인간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⁸⁾ 칼빈의 경우 성령의 작용하시는 기능이 동시에 거룩하게 하시는 기능으로 이해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구절이 비로소 올바르게 이해된 것이다.¹⁹⁾ 다시 말하면 성령은 마리아의 태로 잉태케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고 준비작업을 하셨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철학적 사고에 의존하여 남성의 씨만이 종족 번식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 남성이 개입되지 않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흠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출생의 전 과정에서 거룩하게 하신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

“바울 사도는 다른 구절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가르친다. 곧,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10. CO 1, 64f(=OS I 77f), cf. CO 1, 517; OS III 437(=Inst, 1559, II xii 1).

11. CO 1, 67(=OS I 80f), cf. CO 1, 68(=OS I 81); CO 1, 69(=OS I 182).

12. CO 1, 519f, cf. OS III 447f(=Inst, 1559, II xiii).

13. W. Krusche, op. cit., 131.

14. OS III 448-450, 각주 1; *Contra Mennonem*(1556), in: CO 10a, 167-176; *RE*³ X II, 591f; G. Gloede, *Theologia naturalia bei Calvin*, Tübingen 1935, 6, 173.

15. OS III 451-458(=Inst, 1559, II xiii 2-4), cf. OS III 451: “Quibuscunque cavillis elabi conentur sive Manichaei veteres, sive recentes eorum discipuli, no se expediunt.”

16. OS III 456(=IOnst., 1559, II xiii 3).

17. *Brieve instruction pour armer tous bons fideles contre erreurs de la secte commune des Anabaptistes*(1544), in: CO 7, 109: “Car ce que le saint Esprit est intervenu, a esté pour le sanctifier des le commencement, et en le sanctifiant, le preserver à ce qu’il ne fust entaché d’aucune pollution du genre humain.”

18. OS II 499(=Inst, 1559, II xvi 12); CO 49, 558(=Comm, 1 Cor. 15:45): “Hoc ideo ntandum ne quis putet Spiritum in Christo fuisse loco animae: quod olim putavit Apollinaris.”

19. W. Krusche, op. cit., 132.

는 것이다(롬 8:3-4). 그리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와 보통 사람을 분명하게 잘 구별하여, 그리스도께서 참사람이시지만 허물과 부패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YBC, 로마 가톨릭 교회) 아주 유치하게 떠들어댄다. 곧, 만일 그리스도께서 오점이 전혀 없으시고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통하여 마리아의 씨에서 나셨다면, 여자의 씨는 부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자의 씨만 부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점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비단 그의 모친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그를 낳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아담의 타락 이전에 있었을 그런 순전하고도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로 출생되셨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곧, 성경이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을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그의 참인간성을 두고 하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결하시다는 말은 구태여 반복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다.”²⁰⁾

「복음서 주석」(1555)에서 칼빈은 성령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한다.²¹⁾ 칼빈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신성과 인성)과 그리스도의 무흠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간주했다.²²⁾ 세르베투스에 반대하여, 칼빈은 그리스도의 몸의 형성 시 성령이 그것을 형성시키는 원리였다고 주장했다.²³⁾ 세르베투스는 말씀과 성령을 서로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했다.²⁴⁾ 칼빈에 의

20. OS III 457(=Inst. 1559, II xiii 4).

21. CO 45, 30f(=Comm. Lk. 1:35), cf. CO 45, 54f.

22. CO 45, 31f(=Comm. Lk. 1:35).

23. *Defensio orthodoxae*(1554), in: CO 8, 542: “Fatemur quidem in formanda Chriti carne spiritus virtutem fuisse loco seminis. Sed hoc nihil ad phantasma Serveti, quod verbum fuerit semen generationis.”

24. CO 8, 501: “Item Dialogo, non esse inter Verbum et Spiritum realen differentiam.”; “Omitto nunc quod spiritum cum sermone confundit, cui distinctam hypostasin alibi coactus assignat.”(idem., 564); “Interea de spiritu sancto tacet, quem alibi cum verbo confundit.”(idem., 581); OS III 470(=Inst. 1559, II xvi 8): “Spiritum interea miscet cum ipso Sermone, quia Deus invisibile verbum et Spiritum dispensaverit in carnem et animam.”

하면, 고대 교회와 종교개혁 시대에서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신성 없이 그리스도의 인간성의 속성들을 주장하는가 하면, 이와는 정반대로 그리스도의 인성 없이 그리스도의 신성의 속성들만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주장들에 반대하여 칼빈은 ‘두 본성 속에 있는 한 인격’(una persona in duae naturae)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과 고대교회의 주장을 전거(典據)로 내세운다.²⁵⁾

특히 루터파에 반대하여 칼빈은 ‘엑스트라-칼비니스티쿰’(Extra-Calvinisticum)의 개념을 가지고 그의 성찬론에서 그리스도의 참인간성을 주장한다.²⁶⁾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간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에게 결코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와 무엇인가를 공유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무시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란다.”²⁷⁾

「즈네브 요리문답」(1545)에서 사도신경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구절에 대한 해설에서 칼빈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아닌 바로 구원론적 모티브, 성령의 기적, 증보자의 참인간성과 그의 무흠이다.²⁸⁾

3.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칼빈이 그의 「공관복음서 주석」과 「복음서에 대한 설교」에서 요단 강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성령과 아주 밀접하게 결부시키고 있다는

25. OS III 458-471(=Inst. 1559, II xiv 1-8).

26. CO 1, 121(=OS I, 140); CO 5, 452; CO 7, 103, 736; CO 8, 22.

27. CO 47, 156(=Comm. Joh. 6:56): “Neque enim ad Christum Deum unquam perveniet qui hominem negligit. Quare si tibi vis aliquid cum Christo esse commune, cavendum imprimis est ne carnem eius fastidias.”; cf. CO 50, 150(=Comm. 2 Cor. 13:4): “Quodsi facimus humanam Christi naturam ita nostrae dissimilem, eversum est praecipuum fidei nostrae fundamentum.”

28. CO 6, 23-26(=OS II 81f).

사실이 일반적으로 발견된다.²⁹⁾

칼빈은 「요한복음 주석」(1553)에서 요단 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다.³⁰⁾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는 말씀은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다. 어떤 눈을 가지고 요한이 성령을 볼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비둘기 같다는 말은 성령의 현존(임재)에 대한 분명하고도 오류가 없는 표징이다. 비둘기는 비유적으로 성령으로 불린다. 비둘기 자체가 성령이라는 말이 아니라, 비둘기라는 말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속에서 성령을 보여 준다.”³¹⁾

잇따라 칼빈은 왜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묻는다. 여기에 대한 칼빈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표징과 본질 사이의 유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확고하게 붙들어야만 한다. 성령이 사도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불의 혀 같은 것을 보았다(행 2:3). 왜냐하면 복음의 설교는 모든 방언을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퍼져 나가야 하며, 불의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져 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라고 이사야 42:3이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은유함을 공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 위에 내려 오시는 것이 보였던 첫 번째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 이전에 성령이 그리스도께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말하자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엄숙한 의식을 통해서(YBC, 공적으로 메시아로) 취임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30년 동안 사적으로 개인처럼 숨어 계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의 출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을 때, 그는 세례로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그는 성령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차라리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받으셨다. 우리에게 필요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없는 모든 풍성한

29. CO 45-CO 47.

30. CO 47, 27f(=Comm. Joh. 1:32).

31. CO 47, 27(=Comm. Joh. 1:32).

은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가시적으로 내려오셨다.”³²⁾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성령론과 관련하여 기독교적·교회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신성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이미 그의 영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세례를 받을 필요도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의 인성에 따라서 그는 성령을 통한 준비가 없는 중보자도 구속주도 되실 수가 없기 때문이다.³³⁾

구약에서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직분자들로서 기름부음을 받았듯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삼중직(왕, 제사장, 예언자)으로 기름부음을 받는다.³⁴⁾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성령을 필요로 하지만, 그가 성취하신 구원과 은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백성, 즉 그의 자녀들과 교회를 위한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성령세례를 기독교적으로 그리고 교회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야 할 중보자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가 성취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의 백성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다.

「이사야 주석」(1550)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세례 시에 성령이 그리스도 위에 내려온 것을 구약의 배경 속에서 중보자로서 메시아직에 대한 준비로 이해했다.³⁵⁾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가 이전에 구약의 백성에게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힘과 능력과 위엄이 여기서 성령의 은사들 안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이 같은 종류의 은사들을 결핍하시지

32. CO 47, 28(=Comm. Joh. 1:32).

33. CO 45, 125f(=Comm. Ev. Mt. 3:16), cf. CO 45, 103f(=Comm. Ev. Lk. 2:40); CO 45, 141(=Comm. Ev. Lk. 4:17f); CO 47, 28 등.

34. *Sermons sur l'Harmonie évangélique*, in: CO 46, 371.

35. CO 36-37, 특히 CO 36, 235ff(=Comm. Jes. 11:2); CO 37, 57ff(=Jes. 42:1f); CO 37, 371ff(=Comm. Jes. 61:1) 등.

않을지라도, 그가 우리의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은사들로 풍성하게 되실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와는 달리 우리가 결핍하고 있는 모든 축복들의 참여자들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이 말하듯이 우리는 샘물로부터 그리고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생수를 길러 내야 하기 때문이다(요 1 : 16 ; 요 7 : 37-38).³⁶⁾

계속해서 칼빈은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메시아)로 불리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아버지로부터 은사를 충만히 받아 우리에게 베푸시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름부음을 받으심인데, 여기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으시게 되고, 그는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 결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진다.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엡 4 : 7) 자신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신과의 교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분명히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던 그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친다.”³⁷⁾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은사론을 비판한다. “어떤 사람이 생각했다시피, 선지자는 여기서 성령의 모든 은사들을 열거하지 않는다. 어리석고도 무식하게 교황주의자들은 이 구절로부터 일곱 가지 은혜를 이끌어 냈다. 고대 교부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 실수를 범했다. 선지자는 여섯 가지만 열거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머리로부터 짜낸 일곱 번째 것을 덧붙였다. …… 선지자는 모든 은사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모든 은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또한 우리는 그의 친구로 불린다(시 45 : 7). 왜냐하면 힘이 각 지체들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며, 똑같은 방법으로 그는 자신의 하늘의 기름부음을

36. CO 36, 235(=Comm. Jes. 11 : 2).

37. CO 36, 235f(=Comm. Jes. 11 : 2).

받으심을 그의 온몸이신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메말라 황폐해지고 목마른 사람들은 다 함께 그리스도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은사들 중에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든지 우리의 불신앙을 탓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참신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들의 참여자들로 만들기 때문이다.”³⁸⁾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장직 및 만인제사장직에 대한 칼빈의 사상은 이미 「기독교강요」(1536) 초판과³⁹⁾ 「즈네브 요리문답」(1537)에⁴⁰⁾ 나타난다. 「기독교강요」(1536) 초판의 제5장에서 칼빈은 ‘기름부음’과 관련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직분론과 성례론에 나타나고 있는 의식(儀式)주의적이면서도 자동주의적인 개념을 거부한다.⁴¹⁾ 여기서는 성령론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이중직(왕과 제사장)만 나타나다가, 재판 「기독교강요」(1539)에서는 마틴 부처(Martin Bucer)의 영향으로 예언자직이 첨가되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타난다.⁴²⁾ 「기독교강요」(1559) 최종판에서 칼빈은 교황주의자들은 용어상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각 직분이 내포하고 있는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한다.⁴³⁾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전체나 각 부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행 4 : 12). 그러므로 우리는 그중에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38. CO 36, 236f(=Comm. Jes. 11 : 2).

39. CO 1, 69(=OS I 82).

40. CO 22, 53[=OS I 397 =CO 5, 338, 라틴어판(1538)], cf. 「즈네브 요리문답」(1545/1548), in CO 6, 19-21(=OS II, 79f).

41. CO 1, 141-195(=OS I, 162-223); CO 1, 190(=OS I 217) : “Scilicet rem ingeniosam conantur : ex Christianismo et Iudaismo et paganitae, velut consutis centunculis, religionem unam conficere. Foetet igitur eorum unctio, quae sale, id est, vero Dei destituitur.”

42. CO 1, 514f.

43. OS III 472(=Inst. 1559, II xv 1), cf. OS III 471-481(=Inst. 1559, II xv 1-6).

다른 데서 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구원을 찾는다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은 '그에게서' 온다는 것을 가르친다(고전 1:30). 우리가 성령의 다른 은사들을 찾는다면, 그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기름부음받으신 데서 발견될 것이다.⁴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간성에 따라 받으신 성령의 배분은 이중적인 목적, 즉 자기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온몸이신 교회를 위해서이다.⁴⁵⁾

4.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위는 성령론적으로 규정된다는 크루쉬의 판단은 우리가 보기에 타당하다.⁴⁶⁾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그가 성령을 통해서 행하셨다. 그는 성령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직관하시고, 치료하시고, 투쟁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바로 이 점에서 칼빈의 기독교론은 성령론적으로 규정된다.⁴⁷⁾

성경을 잘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령을 필요로 한다.⁴⁸⁾ 「기독교강요」(1536) 초판에서 칼빈은 '교사'로서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지만, 아직까지 기름부음받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성령론적 관점과는 결부시키지 않고 있다.⁴⁹⁾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최고의 교사이신 성령의 학교에서 성찬론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⁵⁰⁾ 앞에서 우리가

44. OS III 508(=Inst. 1559, II xvi 19); OS III 477f(=Inst. 1559, II xv 5).

45. OS III 473(=Inst. 1559, II xv 2), cf. OS III 450(=Inst. 1559, II xiii 1); OS IV 2(=Inst. 1559, III i 2); ; S. van der Linde, op. cit., 92ff.

46. W. Krusche, op. cit., 135, cf. S. van der Linde, op. cit., 86f: "Zoo geldt het van al Zijn woorden en daden. Zijn woorden waren aangenaam en krachtig."

47. W. Krusche, op. cit., 151; S. van der Linde, op. cit., 92.

48. OS III 60-105(=Inst. 1559, I v-xii); OS III 241-320(=Inst. 1559, II ii-v).

49. CO I, 99(=OS I 115); CO I, 207(=OS I 236).

50. CO I, 125(=OS I 144f): "Nos e converso, ne in eandem incidamus foveam, aure, oculos, corda, mentes, linguas, penitus defigamus in sacra Dei

이미 말했다시피, 「기독교강요」(1539) 재판 이후 모든 개정판에서 칼빈은 기름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예언자직을 연결시킨다.

"그가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아 아버지의 은혜를 선포하는 증인이 되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는 비슷한 직분을 가진 다른 교사들과는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즉, 그가 기름부음을 받은 것은 그 자신이 교사의 직책을 다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온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일에 성령의 권능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전하신 완전한 가르침이 모든 예언을 종결시켰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밖에서 무엇을 가져다가 복음에 꺾매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위를 깎아내린다. …… 그 다음에 이 기름부음이 머리로부터 지체들에게 확산된다. ……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언자로서의 위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에 완전한 지혜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¹⁾

그리스도는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다.⁵²⁾ 그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난을 받으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⁵³⁾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골 3:4)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은 자신의 권능을 단 한 번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성령의 동일한 역사를 보여 주시려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바울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죽을 것을 소생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장차 도래하는 삶에 참여하는 자들로 삼으시기 위해

doctrina. Est enim ea spiritus sancti, optimi magistri, schola, in qua sic proficitur, ut nihil sit asciscendum, ignorandum vero libenter quidquid in ea non docetur."

51. OS III 473(=Inst. 1559, II xv 2).

52. OS III 490f(=Inst., II xvii 6), cf. CO 55, 111(=Comm. Heb. 9:14).

53. OS III 500(=Inst. 1559, II xvi 13); CO I, 59(=OS I 71f).

서 부활하셨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은 그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와 그가 분리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에 참여케 하신다.”⁵⁴⁾

「로마서 주석」(1540)에서 칼빈은 성령을 부활시키시는 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굴복하셨던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심스럽고도 불확실한 성격을 가진 어떤 것의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두셨다.⁵⁵⁾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분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부활하셨다.⁵⁶⁾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칼빈은 고대 교회의 아폴리나리우스와 당대의 소위 자유주의자(les Libertines)와 세르베투스를 비판한다. 아폴리나리우스와 자유주의자에 대한 칼빈의 비판은 「고린도전서 주석」(1546)에 나타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레고리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⁵⁷⁾ 이 같은 주장에 반대하여 칼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레고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연적이며 참된 것으로 이해하고 부활의 목격증언자들은 영적인 부활에 대한 어떤 증언도 하지 않았다고 선포한 바울의 말씀을 자신의 주장의 전거(典據)로 내세운다.⁵⁸⁾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살아 있는 영혼이 되셨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하지만, 더하여 그의 영혼 이외에 주의 영이 그에게 부음바가 되셔서,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 주의해야 할 이유는 한때 아폴리나리우스가 상상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도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으로 대체되었다고 생각하

54. OS IV 435f(=Inst. 1559, III xxv 3).

55. CO 49, 10(=Comm. Rom, 1 : 4).

56. CO 49, 146(=Comm. Rom, 8 : 11).

57. CO 49, 537(=Comm. 1 Cor. 15 : 1).

58. CO 49, 539(=Comm. 1 Cor. 15 : 5ff).

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⁵⁹⁾ 세르베투스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인격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때 그리스도로부터 다른 하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⁶⁰⁾

「요한복음 주석」(1553)에서 칼빈은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행동하셨다고 말한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교사의 직책을 맡으셨다. 그러나 아버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그는 단순한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신비한 계시를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사도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의도하신다. 게다가 사도들의 신앙이 그때까지만 해도 매우 약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그들의 더 큰 발전을 약속하심으로써 그들이 성령의 보다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도록 준비하신다.”⁶¹⁾ 칼빈은 쉽사리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영에 의해서 인도함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의 의도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통이 내적인 것이며 전혀 가짜가 아니었다는 뜻이다.”⁶²⁾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통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신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다.⁶³⁾ 부활시키는 자로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다.⁶⁴⁾

위와 동일한 사상을 우리는 그의 「공관복음서 주석」(1554)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내적 교사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직책을 수행하실 때, 말씀을 수행하는 일꾼의 사역이 헛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깨달음의 영으로 능력을 덧입히신 이래로, 그리스도께서 성경으로부터 그의 백성들과 함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⁶⁵⁾

59. CO 49, 558(=Comm. 1 Cor. 15 : 45).

60. Defensio orthodoxae(1554), in : CO 8, 594.

61. CO 47, 390(=Comm. Joh. 17 : 26).

62. CO 47, 314(=Comm. Joh. 13 : 21).

63. CO 47, 159(=Comm. Joh. 6 : 61f).

64. CO 47, 48(=Comm. Joh. 2 : 19).

65. CO 45, 817(=Comm. Ev. Lk. 24 : 46), cf. CO 45, 142.

그리스도는 그의 신적인 영으로 숨은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들어가신다.⁶⁶⁾

마음속을 아시는 자이신 그의 성령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같은 지식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께 분별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되어 그에게 속한 것이 본질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의 자유로운 선물에 의해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만 한다.”⁶⁷⁾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사람들은 치유의 역사는 성자(聖者)들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믿는다. 칼빈은 이 같은 신앙을 미신(迷信)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받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을 그의 성령으로 고치셨다.⁶⁸⁾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두 맹인들을 성령으로 고쳐 주셨다.⁶⁹⁾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도된 삭개오를 성령으로 구원해 주셨다.⁷⁰⁾ “만약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들의 대표자로서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시험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일어나는 우연한 것이거나 사단의 변덕스런 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싸움 속에 내주(內住)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⁷¹⁾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만 했다. 모든 죽음보다 더 나쁜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낀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에 반대하여 서 계시며, 파멸할 운명에 처한 이 같은 형태 속에서 심판이 그리스도에게 다가왔다. 그는 (모든 인류를 수백 번 삼키고도 충분히 남을) 두려움을 극복하셨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기적적인 능력에

66. CO 45, 246(=Comm. Ev. Mt. 9 : 4), cf. CO 45, 336(=Comm. Ev. Mt. 12 : 25).

67. CO 45, 601(=Comm. Ev. Mt. 22 : 18).

68. CO 45, 256f(=Comm. Ev. Mt. 9 : 20-22).

69. CO 45, 561(=Comm. Ev. Mt. 20 : 32).

70. CO 45, 563(=Comm. Ev. Lk. 19 : 5).

71. CO 45, 230f(=Comm. Ev. Mt. 4 : 1), cf. CO 46, 596.

의해서 승리자가 되셨다.”⁷²⁾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신적인 용기에 의해서 훈련받으시고, 성령의 강력한 힘이 그리스도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인간의 감정을 초월하게 하셨다.⁷³⁾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던 것은 그들의 연약한 육신이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성령의 신적인 능력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곧 이루실 것에 대한 일종의 예표로 사용하신 것은 그가 그의 아들을 영광과 승리 가운데서 하늘로 들어 올리시기 위함이었다.⁷⁴⁾ “바울이 올바르게 말하고 있듯이(고전 15 : 14),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확고하게 붙잡지 않는다면, 복음도 없고 구원의 소망도 헛되고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의는 성취되었고 우리가 하늘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 그때 우리의 입양이 보증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셨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으로는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의 부활을 보여 주셨지만, 그를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이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⁷⁵⁾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부활하셨다.⁷⁶⁾

칼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설교들」에서 성령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매우 자주 언급하지는 않는다.⁷⁷⁾ “만약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조명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내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믿음이 나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고 올곧은 제자들이

72. CO 45, 779(=Comm. Ev. Mt. 27 : 46).

73. CO 45, 551(=Comm. Ev. Mt. 20 : 180).

74. CO 45, 787(=Comm. Ev. Mt. 27 : 57-61의 서문).

75. CO 45, 792(=Comm. Ev. Mt. 28 : 1-7의 서문).

76. CO 45, 813(=Comm. Ev. Lk. 24 : 39).

77. *Sermons sur le 53. Chap. d'Isaïe*, in : CO 35, 581-688 ; *Sermons de la passion*, in : CO 46, 955-968.

되어 이 교리의 열매를 향유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것이다.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셨을지라도, 그에게 주어졌던 성령에 의해서 항상 강력한 힘으로 지원받으셨다. 거룩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여기에 대해 말하다시피,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의 승리를 쟁취하신 것을 보라!”⁷⁸⁾ “그의 부활과 함께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의 부활은 그의 죽음과 고난과 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셨듯이, 그는 그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듯이, 그는 역시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⁷⁹⁾

칼빈은 「사도행전 주석」(1554)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령론적·교회론적·종말론적 관점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이다.⁸⁰⁾ 그리스도는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자시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그는 전(全) 교회로 하여금 그의 생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이다.⁸¹⁾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서 영원히 사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도 영원한 복(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수여하신 생명의 영속성(永續性)이 우리 모두에게 연장되어지고, 우리의 것이 된다.”⁸²⁾

칼빈은 「시편 주석」(1557)에서 우리에게 다음의 사실을 알려 준다. “게다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불멸의 영광의 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무덤이

78. CO 35, 673(=Serm. Jes. 53 : 11), cf. CO 46, 843, 850f, 879.

79. CO 46, 914(=Serm. Mt. 27 : 27-44), cf. 843, 850, 879.

80. CO 48, 47(=Comm. Act. 2 : 25).

81. CO 48, 47(=Comm. Act. 2 : 32).

82. CO 48, 302(=Comm. Act. 13 : 34).

그의 성령의 생명을 주는 향기로 방부처리된 것처럼 가득 채워졌다.”⁸³⁾

5. 결론

칼빈의 경우,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상호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양자는 상호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음이 밝혀졌다. 잉태로부터 부활에 이르는 그의 전(全) 생애와 삶이 성령론적으로 규정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는 성령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으로 시험받으셨고,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셨고, 성령으로 병자들을 고치셨고, 성령으로 고난받으셨고,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으로 자신을 아버지께 대속물로 드리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본 주제와 관련해서 칼빈은 몇 그룹의 논쟁자들을 만났다. 그리스도의 참인간성 문제를 중심으로 칼빈은 창조세계를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이원론적·가현설적 사상가들을 만났다. 그 중에 고대 교회에 악영향을 미쳤던 마니교도들, 마르시온주의, 아폴리나리우스가 있고,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재세례파가 있었다. 마르시온주의는 그리스도의 참인간성을 전적으로 부인했고, 마니교도들과 재세례파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입고 오신 ‘천상적인 육신’을 주장했다. 아폴리나리우스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입고 오신 ‘영혼’(누스)을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말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세르베투스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성령 사이를 잘 구별하지 못했다. 칼빈의 비판이 강하게 집중되는 논쟁자 그룹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소위 교황주의자들)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죄 없음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83. CO 31, 157(=Comm. Ps. 16 : 10).

같이 주장한다. 교황주의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차용하여 남성만이 종족번식에 기여하는데, 그리스도의 탄생의 경우 여성으로서 마리아만이 관계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무흠(無欠)하다는 것이다. 이 모든 개념들에 반대하여 칼빈은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성령께서 잉태케 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주장한다.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 및 성례전의 효과와 관련해서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자동주의적 개념을 도출한 사효론(事效論, ex opere operato)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표징과 실재 사이의 유비 안에서 최고의 교사로서 성령을 강조한다.

직접적으로는 성찬론과 관계되지만 간접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론, 특히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계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칼빈은 루터파에 대한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루터파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편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속성의 교류’(communicatio idiomatum)를 강하게 주장하여 역사적 예수의 경우 신성이 인성화하는 경향이 있고, 부활·승천하여 승귀된 그리스도의 경우 인성이 신성화하는 경향이 있다. 칼빈은 성령론적 관점에서 루터파에 의한 그리스도의 인성의 신성화를 비판했다.

성령과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칼빈과 함께 우리는 성령의 담지자로서의 예수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리스도는 제2위의 하나님, 즉 그의 신성에 따라서는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중보자와 구속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의 인성에 따라서 그는 성령을 받으셔야만 했다. 또한 중보자의 성육신의 동기와 목적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기름부음을 받으심은 이중적인 목적, 즉 기독교적 목적과 교회론적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사와 신학사에서 부활·승천 이후 고양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파송자라는 측면은 강조되었지만, 성령의 담지자로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강조는 전무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의 성경신학의 연구, 특히 공관복음서 연구를 통해서 성령의 담지자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측면이 밝혀

졌으나, 부당하게도 어떤 성경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선재(先在)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양설(양자설, adoptionism)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성경신학자들은 말씀-기독교론(Logos-Christology)을 거부하고, 영-기독교론(Pnuma-Christology)을 주장한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인간성 때문에 그리고 그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필요로 하고, 기름부음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칼빈의 주장은 최근의 위와 같은 주장들에 대한 비판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